

시
목
음

침략자 미제와 반드시 결산하리라

기어이 결산하리라

김태룡

참을수 없는 분노로
퍼리지게 절규했노라
서슬푸른 중으로
세기를 두고 저주를 퍼부었노라
미제침략자

생기고
전쟁, 불행과 재난
그 끔찍한 말들이
우리 사는 땅에 총탄처럼 박혀
있거니

어대는
미국이야말로 《악마의 나라》

오, 치솟는 격분이어
미제—그 악의 제국 그대로 있는
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넘침으로만 남아있게 되거늘

가슴을 치는 증오를 쏟아
대를 두고 다져온 분노를 폭발
시켜
우리는 침략자 미제와 반드시
결산하리라
오, 피는 피로써
우리에겐 받아야 할 피값이
너무도 많다

《저강도도발》이요 하는 미국
의 꼴이

구린내나는 몸통이를
《유엔》이라는 면사포로 가리
우지 말라
누가 유엔결의를 위반하는가
주권과 평토존중은 유엔성원국
들의 의무

그 유엔의 헌장에 준하여
공화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모를 일이야

리신일

모를 일이다
왜 그리고 떠들어댔가
미국놈들
북의 로케트가 평화를 위협한
다고

모를 일이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핵무기를
흔들어대며
세계제패를 운운하는 미국놈들
왜 날마다 눈감고 아옹할가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
를 놓고

그런데 왜 그리 떠들어댔가
모를 일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돌아가며 채터미로 만드는 미국
놈들

남마다 《선제타격》 췌쳐대며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바다에
침략전쟁연습 펼쳐놓고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들이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을 지
키며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하
였다

무지한 사고와 황당한 논리로
결고드는 도발이 도수를 넘어서
게 되면
엄숙히 경고한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하는것을
이것은 도발도 위협도 아니다

《제재》와 《압살》의 울가
미로
계속 조이기만 하는데
이건 어찌된 판이야!
북은 팡—팡 로케트를 쏘며
우리를 《위협》하고있으니?!

《대국》이라 으시대던 미국
《도발》이며 《위반》이라
고아대며 불안 감추지 못한다
각종 미씨일들 제일 많이 쏘아
대고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공포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군

밀면서도
어찌구니가 없다
우리보고 죽을 때나 기다리라는
건가

정말 모를 일이야

공포중에 걸린 미국

김송림

저 멀리 대양 건너 미국
요즘은 두통에 걸려 참 야단
났네
북의 로케트발사를 두고
《도발》이다, 《위반》이다!—
미친듯 고아대며 날뛰고있으니
《제재》와 《압살》의 울가
미로
계속 조이기만 하는데
이건 어찌된 판이야!
북은 팡—팡 로케트를 쏘며
우리를 《위협》하고있으니?!

《대국》이라 으시대던 미국
《도발》이며 《위반》이라
고아대며 불안 감추지 못한다
각종 미씨일들 제일 많이 쏘아
대고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공포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군

제노라 우쭐대는 미국놈들
오는 주먹 하나면 가는 주먹
하나

그것도 모르는 천치바보인가
우리가 그러도 무서우면
우리를 건드리지나 말지

《대국》의 체면에 그게 뭔가
단 몇발의 로케트발사에
벌벌 떠는 꼴
저러다간 머칠을 못 넘기겠네
넋을 잃고 정신 잃은 미국
더 큰 로케트 쏘다면
아예 너부리지지는 않겠는지

제아무리 악을 쓰며 고아대고
《제재》며 《위협》을 가해도
오히려 심신이 불편해하는건
미국
개교양신 당하는것도 미국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국》의 체면 잃지 않으려
거든
점잖게 입다물고 가만있는게
어떤가
그 길만이 공포증 치료하는
만능처방 아닐가!

대
답

북침을 노린 위협천만한 상륙작전연습

내의호전세력들이 남조선
의 포항에서 대규모 《쌍
룡》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
은것과 관련하여 본사가자
는 남조선정세전문가 랑세
철과 대담을 가졌었다.

기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쌍룡》 연합상륙
훈련이 감행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
면 한다.

랑세철: 3월 27일에 시
작된 《쌍룡》 연합상륙훈련
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
게 된다.

이번 《쌍룡》 연합상륙훈
련에는 오기나와주둔 미해
병대 제3원정려단, 해군기
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
부력 9 500여명과 남조선군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보도하였다.
기자: 이번 《쌍룡》 연
합상륙훈련은 철두철미 공화
국을 겨냥한 공격연습이 아
닌가.

랑세철: 그렇다. 일반적
으로 상륙은 방대한 무력이
해상과 공중무력의 지원밀
에 상륙장갑차, 수륙양용망
크 등을 리용하여 상대측의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깊이
로 전투지역을 넓히면서 중
원무력이 진출할수 있는 발
판과 규모에 있어서 지난
해보다 몇배나 더 큰 그야
말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
도 이번 《쌍룡》 연합상륙
훈련이 1993년 《팀 스피
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20여년만에 최대규모라고

이렇게 놓고볼 때 이번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급과 규모에 있어서 지난
해보다 몇배나 더 큰 그야
말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
도 이번 《쌍룡》 연합상륙
훈련이 1993년 《팀 스피
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20여년만에 최대규모라고

《쌍룡》 훈련의 공격적,
침략적성격은 여기에 동원
된 무력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해병대가 상대방의 해안
에 대한 상륙작전을 기본으
로 하는 무력으로서 공격작

전의 척후대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오기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은 제
3해병사단, 제1해병비행단,
제3해병군수지원단과 함께
미 제3해병원정단과 소속
된 무력으로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조선반도로 가장 먼저 투입
되는 미군중원무력이다.

뿐만아니라 미해병대 제
3원정려단은 우리 나라에 대
한 공격작전을 기본임무로
하고있으며 이미 이라크전
쟁에 참가하여 실전능력을
쌓은 침략부력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공화국을 겨냥한 공격훈
련이라는것은 연습지대선
택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은 해류와
해안지대의 특성상 공화국
북반부의 동해안지역과 매
우 유사한 곳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해마다 이곳에서 북침을 노
린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을 반
복하여 벌려놓고있다.

기자: 미국이 해마다 남
조선군과 함께 포항일대에
서 연합상륙훈련을 감행하
고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고 보는가.

랑세철: 그것은 공화국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송미사대에 물젖은 현실을 개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0일 사
설을 통해 송미사대에 물젖
은 남조선사회현실을 개탄하
였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사회
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착
각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썼다.
과연 미국이 선진국인가
에 대해 맹렬하게 따져보아
야 한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선망
해 마지않는 《선진국의 표
상》 미국은 어떤가.
클린턴행정부시기 장관을
지냈던 미국 버클리대학 교
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불
평등심화를 다룬 영화를 내
놓았다.

영화제작경위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가 헛살았던것 같다.
세상은 더 나빠졌다. 사람들
은 이제 변화는 불가능하다
고 생각할 정도이다. 죄다
월가와 한통속이다. 그렇다
고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훼손
하는것을 지켜볼수만 있지
않는가?》
미국은 부유한 1%가 국
민총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99%가 나머지
10%를 나눠가지고있다.
실제로 재벌 400명이 1억
5 000만명이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있다.
《1% 대 99%》의 사회를
고발한 2011년 9월의 월가점
령시위가 벌어지게 된 배경

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표상》
이자 《신자유주의의 원조》
미국이란 나라의 실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파산신고
를 받은 미국식신자유주의
의로민영화에 따른 망국화
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빈
궁에서 허덕이고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최
악의 미국식의로제도를 선
진제도인것처럼 의곡선전하
면서 의로민영화정책을 강
행하고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망상
에서 깨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송미사대주의의
착각에 빠져 머저리노릇이
나 하겠는가.

본사기자

미국제 선제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

남조선인터넷신문 《자
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
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
람들》이 25일 서울 통산에
있는 국방부앞에서 미국제
선제공격무기의 구입을 반
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
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미국제 무인정찰기
와 《F-35A》 전투기를 구
입할것을 결정한데 대해 연
급하였다.

이 무기들은 반공화국선제
공격방안이 담겨진 《맞춤형
억제전략》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에서 핵심으로 되고있다

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

고 밝혔다.
이것이 도입되면 조선반
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게 된다고 규탄하
였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서의 미국의 봉쇄전략실현에
남조선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엄청난 국민혈세를
랑비하게 하는 미국제 무기
구입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단체 회원들은 《전쟁 촉발
시키는 무기도입 반대!》 등
의 구호들을 웨쳤다.

본사기자

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은 개죽음

미국이 남조선의 포항에
서 수많은 해병대부리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대
규모상륙작전연습을 벌리면
서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
있다.

그야말로 하루강아지 범무
서운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
은 망동이다.
호전광이 갈길은 전쟁이요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처참한
개죽음이다.

3각군사동맹이 불려올 재앙은

일마전 네메를란
드의 헤그에서 미
국, 남조선, 일본
당국자들이 모여
《3자회담》이라
는것을 벌려놓았다.
대조선전대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이 주관
한 이 공중이관에
서 그 누구의 《핵
위협》이니, 《공
동대응》이니 뭐
니 하는 공화국을
자국하는 망언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이러한 반공화국
핵모의를 두고 세
계 여러 나라 정세
분석가들은 미국이
3각군사동맹을 강
화하여 대아시아침
략전략을 실현해볼
겠다는 속심을 그
대로 드러낸 모의
판이라고 평하고
있다.

라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원래 미국과 남
조선, 일본은 헤그
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
의》에 참가하는 하
지만 《3자회담》
은 그 일정에 포함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회
의가 열리기 며칠전에 그 일
정이 발표되고 이번 《3자회

담》이 진행되었다. 자국의
리해타산으로부터 출발한 미
국의 압력이 작용한것이다.
최근년간 일본의 역사외곡
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은 남조
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이로 인해
일본과 남조선의 관계가 랭
행해졌다. 단말이 나것은 남
조선과 일본을 돌격대로 내
세워 아시아지배전략을 추구
하는 미국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티각태
각하는 두 하수인들을 《화
해》시켜 서로 손을 잡게 하
려고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
였다. 그 압력에 못건디여
미국의 주관하에 남조선과
일본이 이번 《회담》탁에
모여앉은것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강압에 의
해 마련된 《회담》이다보
니 그 내용도 미국의 대아
시아침략전략실현에 남조선
과 일본이 적극 동조하라는
미국의 요구뿐이었다. 미국
은 모의판에서 《지역평화
와 《안정》을 떠들며 각이
한 합동군사훈련들과 미사
일방어체계수립 등에 하수인
들이 적극 참여할것을 강박
하였다.

미국주도하의 3각군사동맹
이 추구하는 침략대상은 결
코 조선반도에만 국한되는것
이 아니다.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
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동
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

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은 어제
도 오늘도 변함없는 미
국의 대외정책이다. 그 침략
정책실현의 선전대, 돌격대
로 남조선과 일본을 리용하
자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
이다.

미국은 지금 그 누구의
《핵위협》이니, 《도발》
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에
서 침략전쟁의 기회만 노리
고있다. 이 시각에도 남조선
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독수리》합동군사
연습도 따지고보면 그 무
슨 《도발》과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독수
리》북침전쟁연습을 벌리
고있지만 까까은 시일안에
이와 유사한 훈련들에 일본
까지 가세할수 있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침략전략에
따라 체모를 갖추어나가는
미국, 남조선, 일본의 3각군
사동맹의 위험성은 날이 갈
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주
도하의 남조선, 일본의 3각
군사동맹에 우리 민족은 물
론 세계가 걱정하고 눈초리
를 돌려야 할 때이다.

송춘일



공공적인 《3자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세계의 평가－악의 근원은 미국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온갖
못된것을 일삼고있어 수많
은 나라 사람들과에서 비난
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인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
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의 24%가 미국을 가장 위함
한 나라로 본다는 견해를 표
시하였다.
반면에 서방언론들이

《악과 위협의 근원》으로
평가한 나라들을 가장 위함
한 나라로 꼽은 응답자비율
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